



■ 한국과학재단 金定德 이사장

전문위원실 활성화 ... 여성시상제 도입

■ 인터뷰 일자 : 4월 8일 오후 2시

장소 :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실

■ ‘한국과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과학재단이 그간의 사무총장 체제에서 이사장 체제로 강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선임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취임하자마자 「과학과 기술」지에서 이런 대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나라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주위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이므로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총장제에서 이사장제로 바뀐 후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업무집행 뿐 아니라 주어진 범위 내에선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소신있고 좀 더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지난 99년 8월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여 1년반여 동안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우리 기초연구능력 제고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력 향상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과학재단은 우리나라 기초연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학재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6년 과학기술부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 : National Academy of Science)와 공동으로 과학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우리 재단의 첫 역사입니다. 동년 12월에 한국과학재단(법률 제29043호)법이 만들어졌고, 다음해인 77년 5월에 설립되어 서울 홍릉에 있는 당시 KORSTIC(과학기술정보센터) 현재는 KISTI(과학기술정보연구원) 건물에 첫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77년 설립 ... 현재 2만·4천·1부로 운영

설립과 동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첫번째 국제협력각서를 교환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출발로 연구지원사업과 학술활동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현 기계연구원 내로 이전하였으며 87년과 89년에 각각 한국과학상 및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설립 후 14년간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90년에 우리 모든 직원들의 염원이었던 독자적인 건물을 현재의 위치에 짓고 새로운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94년 한국공학상 시상, 95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등을 펼쳐왔고 97년도에는 한·미 과학협력센터를 미국 워싱턴에 설립하는 등 24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과학재단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각종 국내외 학술활동과 국제협력활동, 그리고 산학협력활동 등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1977년도에 설립된 과학재단은 지난 24년간 연구활동 지원, 과학교육 진흥, 연구인력 양성과 국내외 학술활동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교류 지원 등 기초연구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관성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학의 연구환경을 세계 일류 과학국가로 가는 터전을 닦는데 큰 몫을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89년에 기초과학진흥 원년이 선포되어 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김정덕 신임이사장은 ‘앞으로 전문위원제를 활성화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이공계분야를 전공하고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충원하겠다’ 면서
‘여성과학자들이 연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과
여성과학자의 시상제도도 도입하겠다’ 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 연구성과를 목표로 특정분야별로 연구집단을 조직 체계화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과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키 위한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초연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83개의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지원이 종료된 31개를 제외하고 52개 센터가 국제적 수준의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SCI 논문 수로 볼 때 99년 기준으로 2천1백38편이 발표되어 우리나라 전체 건수 1만1천10편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체가 원하는 원천기술과 에로기술을 해결해주고 현장경험을 갖춘 맞춤형 인력을 양성시켜 대학과 지역산업이 힘을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지난 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과학기술 지방확산의 첨병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재단은 박사학위를 막 취득한 젊은 과학자들을 선진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하게 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박사후연수(Post-doc.)사업으로 그 동안 3천5백여명을 연수시켜,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정상급 핵심인력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개최

또한 IMF체제 하에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과학

기술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가 배출되었지만 그들이 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고급 과학두뇌들을 사장시키지 않게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을 펼쳐 지난해까지 6천여명이 연구현장에 투입되어 대학, 연구소, 기업체의 연구개발이 멈추지 않게 하고 투입된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능력을 연마·유지시켜 미래를 대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분야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제 중 하나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2000년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었으며, 2002년에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자라나는 과학 꿈나무에게 희망과 꿈을 심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리라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향후 재단의 역할과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주도하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도 이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정립하고 제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지식기반사회는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의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양적인 문제는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질적인 문제는 전혀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식과 전문성으로 무장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입한 전문위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충원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과학재단은 지원기관 업무 특성상 평가의 문제가 항상 따라 다니게 마련입니다. 특히 각종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에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지원 제외대상도 늘어나 평가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더욱 더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Peer Review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평가문항, 평가배점, 평가선정기법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은 좀 더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설계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 중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연구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사이버공간에서 연구과제 신청에서부터 평가·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과 절차단계가 실시간에 공개되어 디지털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선진연구 지원과 동등한 수준의 연구지원행정을 구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 둘 모이면 우리 고객인 대학사회로부터 한층 더 신뢰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 앞으로 재단의 운영을 지난 기간의 양적 발전에 이어 질적 발전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에 따르는 앞으로의 세부 방안과 활동 계획도 소개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기초과학의 육성 과 원천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 산업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 과학기술의 중심이며 출발은 바로 기초과학 연구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과학재단과 같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은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재단에서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 조화와 균형이라는 상반된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구축할 것입니다.

사기진작위해 '우수성과 공식인증제' 계획

사회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도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그룹만 잘 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토대로 국가

과학기술 목적이나 세계 과학기술과의 비교우위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과제와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이 마찬가지로겠지만 우리나라도 여성인력이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만 국부를 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산·육아 등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한 환경으로 연구활동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라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 과학자들이 연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이 뛰어난 여성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도 제정을 기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은 결국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활동 주체인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과학재단에서 한국과학상·공학상,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등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연구자가 이런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어 과학기술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연구성과의 부진에 대한 질타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연구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연구풍토가 조성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⑤7

송해성 <본지 객원기자>

P E O P L E
<p>김정덕이사장(59세)은 6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68년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71년 동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육사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장,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하나로통신(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99년부터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p> <p>전자공학분야 학자이기도 한 김이사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재직하며 한국형 유도무기의 개발과 각종 군 통신장비 개발에 공헌하기도 했으며, 「기초전기전자공학(공편저, 일신사 발행, 1974) 등의 저서 다수와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p> <p>김이사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79년과 89년에는 보국훈장 삼일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p>